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네고물량과 롱스탑이 합쳐지면서 이틀연속 하락마감
-------------	----------------------------

- 전일 달러-원 환율은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롱스탑이 합쳐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 달러화는 전일 급락의 여파와 이날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다. 장 초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며 달러화는 매수 쪽으로 기울었으나 수출업체 네고물량에 상승폭이 제한됐다. 이후 달러화는 롱스탑이 급격히 유발되며 하락 폭을 키워 1,115원선 부근에서 증가를 형성했다.
- 코스피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부진 소식과 미국 증시 폭락 등의 대외 악재에도 추경 효과에 힘입어 1.76포인트 오른 1,922.21로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4.00	1124.50	1114.00	1115.20	1119.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58.24	1169.50	1135.23	1143.09

금일 전망	단기 급락에 따른 부담에도 슈퍼추경과 네고물량에 추가 하락예상
--------------	------------------------------------

-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틀에 걸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슈퍼추경과 네고물량에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 2거래일 연속 롱스탑 장세가 이어지면서 롱 심리가 크게 훼손됐다. 달러 매수세를 지지하는 외국인 주식 배당금 역송금도 전일 까지 굵직한 지급들이 마무리 되면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돌발 변수가 없다면 롱포지션 구축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전일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7조3천억원의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서 슈퍼 추경에 따른 달러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날 달러화는 1,110원대 초중반에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욕증시는 보스턴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개선 및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5.00 ~ 1120.00 원
------------------	---------------------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406.81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7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4756.78, +157.58p(+1.0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2.905 억달러
--------------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6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